



수능 당일 아침,
30분 동안 볼
수능 국어 행동영역

09

다람쥐 편저

목차

1. 풀이 순서와 시간 정하기
2. 자신만의 행동영역 정리하기
(화작/문법/문학/비문학)
3. 화작 행동영역
 - 첫 지문부터 글이 튕긴다면
4. 문학 행동영역
 -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데 다 맞는 것 같다면
 - 고전 작품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면
 - 고전 소설이 출제된다면
 - 소설에서 (중략)이 나온다면
5. 비문학 행동영역
 - 법경제 지문이 나온다면
 - 과학기술 지문이 나온다면 1, 2

5. 비문학 행동영역 - 과학기술 지문이 나온다면 2 (그림 X)

이번에 설명할 행동영역은 @구조에 대한 서술이 나오면 그리기다

Cd 지문 설명하면서 @구조에 대한 서술이 나오면

리기를 언급하고 그림이 있는 경우엔 그림을 활용하라 하며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림이 없는 경우다

그림이 없다=그림이 생략되었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우리는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를 해야한다 이유를 설명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만약 LFIA 키트 지문에서 LFIA 키트의 구조도를 그림으로 줬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문의 난이도는 확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림을 안 준다고 해서 cd 지문처럼 그림 없이 못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니 생략이 가능하긴 하다

즉 평가원에서는 그림의 생략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한 것이고 생략을 통해 난이도를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구조를 그리면 생략된 부분을 채우는 것이고 난이도를 낮춰서 지문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 것이다

구조를 그리는 크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빈 공간에 직접 그리거나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제대로 된그림을 그려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문단을 읽고 그림을 그려보자 (원본은 댓글)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된 거다 (파란색: 시료패드, 빨간색: 결합패드, 금색: 반응막, 은색: 흡수패드, 빨간색 삼발이: 검사선, 검은색 삼발이: 표준선

/출처: http://www.proteometech.com/r_d/)



이 그림을 머릿속이든, 여백이든 그려내는 것이 이 문단을 이해해내는 것이고 나는 결국 이것이 독해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그림을 머릿속이든, 여백이든, 그려놓고 다음 문단을 읽는 사람과 그냥 글을 읽기만 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이해도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당연히 속도나 정답률에서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